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고찰*

박종홍**

— || 차례 || —

- I. 머리말
- II. '기호 사각형'에 의거한 죽음의 구조화
- III. 구조화에 따른 죽음의 의미
- IV. 맺음말

【 】

본고에서는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의 모델을 활용하여 일제 강점기에 발표된 최명익 소설에서 죽음을 구조화하고 그것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기로 한다. 먼저 '명령지시된 죽음'은 질병사이고 그것의 반대항은 '금지된 죽음'인 타살로, 모순항은 '명령지시되지 않은 죽음'인 사고사로, '금지된 죽음'의 모순항은 '금지되지 않은 죽음'인 자살로 죽음을 구조화할 수 있다. 언뜻 볼 때에 최명익의 소설에서는 <비오는 길>의 이칠성의 죽음, <봄과 신작로>의 금녀의 죽음, <무성격자>의 문주와 만수노인의 죽음처럼 '명령지시된 죽음'인 질병사가 대다수로 나타나고, '금지되지 않은 죽음'인 자살이 <심문>의 여옥에게서 한 번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깊이 따져볼 때에 질병사도 작품마다 각자의 변별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금지된 죽음'인 타살도 암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비오는 길>에서 이칠성은 특정한 가해자가 없이 자연의 우발적 횡포라 할 유행병으로 죽으며, <봄과 신작로>에서 금녀는 인습적 결혼의 억압 속에서 트럭운전수의 악행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며 죽는다. 그들은 당시에 치유가 가능한 질병에도

* 이 연구는 2016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불구하고 치료도 못한 채 죽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이칠성과 달리 금녀에게는 특정 가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달리한다. 그리하여 이칠성의 죽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금녀의 죽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무성격자>에서 문주의 결핵과 만수노인의 위암은 당시에 치유 불가능한 질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그들의 질병이 다르듯이 죽음의 의미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문주는 허무 속에서 삶의 의욕을 잃고 이미 죽은 자가 죽은 것이라면, 만수노인은 초인적인 삶의 의지를 보이듯이 그때 죽지만 죽은 것이 아니란 것이다. 그리고 정일이 만수노인의 의지력을 결국 존중하듯이 죽음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심문>에서는 타락한 애인 현일영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자존감을 지키고자 한 여옥의 자살을 긍정하고 있다면, <장삼이사>에서는 도망치다 다시 잡혀가는 창녀가 포주의 심한 모욕 속에서도 자살하지 않은 것을 긍정함으로써 자살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죽음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낸다는 점은 죽음에 대한 최명익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태도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질병사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며, 자살을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면서, 긍정과 부정의 왕복 운동 속에서도 자기 성찰을 통해 주요 인물들이 차츰 죽음의 허무에서 벗어나서 삶의 의지를 증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주제어 : 기호사각형, 죽음, 의미, 명령지시된, 금지된, 명령지시되지 않은, 금지되지 않은, 자기 성찰

I. 머리말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최명익의 소설을 대상으로 삼아 죽음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죽음은 이 시기에 최명익의 소설 전반에 나타나는 핵심적 특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비오는 길>(『조광』 6-7호, 1936.4-5)에서는 ‘이칠성’의 죽음, <무성격자>(『조광』 3권 9호, 1937.9)에서는 ‘문주’와 ‘만수노인’의 죽음, <봄과 신작로>(『조광』,

1939.1)에서는 ‘금녀’의 죽음, <심문>(『문장』 제5집, 1939.6)에서는 ‘여옥’의 죽음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음이 나오지는 않지만, <역설>(『여성』 제3권 제2-3호, 1938.2-3)에서는 문일의 생활을 옴두꺼비의 동면에 비유함으로써 죽음을 암시하고 있고, <장삼이사>(『문장』 제3권 4호, 1941.4)에서는 여인의 죽음이 ‘나’의 망상 속에서 제시되고 있다.¹⁾

이에 이재선도 “그의 문학은 이상이나 김동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징후 내지는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에 의해 지배되는 듯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의 곳곳에서 음산한 죽음의 전조와 징후가 현재화하고 있으며, 또 작품의 주인공들은 끊임없이 죽음과 마주치거나 또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²⁾라고 하며 죽음이 최명익 소설의 핵심적 면모임을 지적한 바 있다. 최명익이 닫힌 사회의 무력성을 죽음에 의해 구체화하고 있으며, 의지력이나 어떤 에너지의 현시로서 삶을 이해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죽음이 각각 어떻게 변별되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해명하고 있지는 않다.

최명익의 소설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비교적 풍성하게 이루어져 있는 편이다. 지식인의 자의식, 심리소설적 특성, 세계관의 변모, 근대성의 경험양상, 시공간, 기차 공간, 승차 모티프, 에피퍼니, 행동자, 질투의 정념 등 다양한 측면의 접근을 통해 그 특성이 폭넓게 검토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명익 소설의 지배적이고 핵심적인 특성이라 할 죽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작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전체 작품을 검토하면서

1) 여기에 거론한 여섯 작품은 최명익 창작집 『장삼이사』(을유문화사, 1947)에 실려 있는 작품들이다. 당시에 발표된 작품으로 <폐어인>(『조선일보』, 1939.2.5-25)은 이 책에서 제외되었다. 최명익이 작품집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기에, 본고에서도 이 작품은 다루지 않는다. 앞으로 이 책에서의 인용은 작품명과 쪽수만 적기로 한다.

2)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p.485.

부분적으로 죽음을 다루거나 일부 작품을 대상으로 죽음을 다룬 연구는 더러 있다.

오주리는 <무성격자>만을 대상으로 삼아 지식인의 심리 묘사 방식으로 ‘내적 독백’을 중시하면서 라캉의 이론에 의거하여 인물의 죽음을 두 유형을 나누고 그 특성을 검토한다.³⁾ 그리하여 문주의 죽음을 ‘미의 논리에 따른 상징적 죽음’이라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만수 노인의 죽음을 ‘생존 논리에 따른 자연적 죽음’이라 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가는 주인공 정일이 결말에서 만수노인을 선택하고 그의 삶의 의지를 긍정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박수현은 최명익의 소설 중에서 <비오는 길>과 <무성격자>를 대상으로 삼아 생명 본능인 에로스 와 죽음 본능인 타나토스란 두 가지 경향이 주체에게 ‘내적 분열’을 야기하는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상호 갈등하면서 내적 분열을 야기한다는 점을 주목하여 그러한 내적 분열이 자의식 강한 작가에게 보편적인 현상이 된다고 여긴다.⁴⁾ 하지만 이것은 프로이트의 심리 분석 이론에 의거하여 최명익 소설의 내적 분열 양상을 인간 본성의 보편적 발현으로 설명하는데 머물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 모델을 원용하여 일제강점기의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죽음을 구조화하고 그것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⁵⁾ 이때에 직관이 아닌 논리적 분석에 따른 변별성에 주목하

3) 오주리, 『최명익의 <무성격자>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32, 한국근대문학회, 2015.10, pp.425-454.

4) 박수현, 『에로스/타나토스 간 ‘내적 분열’의 양상과 의미-최명익의 소설 <무성격자>와 <비오는 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7, 2009, pp.327-353.

5) 구조주의론의 한계도 물론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일련의 심리언어학자들은 ‘기호논리학’과 ‘집합이론’의 틀에 의한 의미 분석의 한계를 인식한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 접어들어 일상 언어의 새로운 의미 모형

여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죽음의 구조화를 통한 다양한 의미 관계를 고려해 볼 것이다. 최용호의 적절한 언급처럼 “의미 관계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작용이”⁶⁾기에 전체적인 맥락을 중시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호 사각형’의 모델을 통해 죽음을 구조화하고 그것의 의미에 대한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최명익 소설의 핵심적 특성을 명료하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 장에서는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이란 어떤 것이며, 이러한 모델에 의거하여 최명익 소설에서 죽음이 어떻게 구조화되는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II. ‘기호사각형’에 의거한 죽음의 구조화

그레마스는 이제까지 의미 작용의 지각에서 우세했던 의미에 대한 순발적·직관적 경험주의를 비판하며, 기호들의 단순한 수집이 아니라 의미의 역동적 생산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레마스에 의하면, 의미란 하나의 낱말 혹은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동일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관형을 주고자 시도하면서 다른 낱말들과 다른 문장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의미 작용은 이런 문맥에서 두 개의 언어 수준 혹은 두 개의 상이한 코드

인 ‘인지의미론’이 개발되기에 이른다. 인지의미론자인 레이콕에 의하면, ‘의미’는 망 구조를 가진 인지적 범주 속에서 조직된다. 이 때 한 범주의 중심에는 그 범주의 원형적인 요소가 있으며, 다른 원소들은 원형과의 관계에 따라 그 중심에서부터 주변에 이르기까지 계층적으로 배치된다. 그 결과 인지의미론은 동질적인 원소들의 분석할 수 없는 한정된 집합이 아니라, 원형과의 관련성에 의하여 계층적으로 구조화되고 상호 관련된 원소들의 망을 제공하게 된다. 임지룡,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1997, pp.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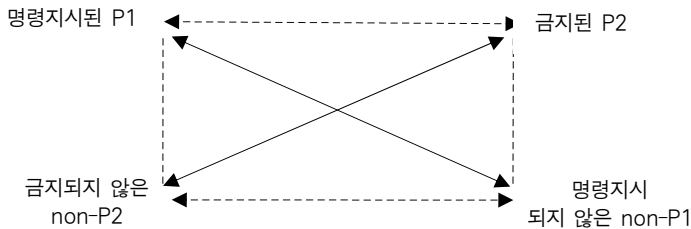
6) 최용호, 「그레마스의 의미생성 모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어와 언어학』 제38집, 2006.9, p.171.

사이의 상관관계로서 규정될 수 있다. “즉 하나의 의미론적 세계로서 투영 시키는 의미 구조의 발현 사이에서 연속성의 해결은 없고 오직 일련의 코드 변환의 조작들이 있을 뿐이란 것이다.”⁷⁾

그러니까 그레마스는 ‘기호 사각형’(carré sémiotique)에 의거하여 의미의 생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기호 사각형’은 의미 작용의 기본 구조를 표상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의미론적 범주의 논리적 분절을 가시적으로 표상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⁸⁾

이에 문화와 자연의 변별성에 따른 ‘기호 사각형’의 모델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식 1〉



7) 그레마스, 『의미의 구조』, 『의미에 관하여: 기호학적 시론』, 김성도 역, 인간사랑, 1997, p.94.

8) 텍스트의 복합적인 의미 분석 층위는 ‘심층 층위’, ‘표층 층위’, ‘담화 구조’의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각 층위는 통사적 구성요소와 의미적 구성요소를 갖는다. 그리하여 의미생성행로는 생성의 출발점인 심층 층위에서 담화가 구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생성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즉 텍스트는 세 가지 층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생성되는데, 각 단계에서 변형과 전환을 거치게 된다. 계열적이고 분류적이고 정적인 양상은 심층 층위의 의미적 구성 요소인 ‘의소’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통합적이며 통사적이고 동적인 양상은 심층 층위의 통합적 구성요소인 ‘기호 사각형’을 통해 한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의 이행을 드러내는 작용의 땅이다. 이때에 모순관계는 부정 작용에 일치되고, 전제관계는 선택작용에 일치된다. 홍정표, 『정념기호학』,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4, pp.27-28.

이때에 P1과 P2 및 non-P2와 non-P1은 반대관계이고, P1과 non-P1 및 P2와 non-P2는 모순관계이다. 그리고 P1과 non-P2 및 P2와 non-P1은 함의관계이다.⁹⁾

그러니까 그레마스에 의하면, 도덕적 규범은 긍정적인 면인 ‘명령지시된’(préscrit)과 부정적인 면으로 반대항인 ‘금지된’(interdit)을 갖는다. 또한 ‘명령지시된’의 모순항인 ‘명령지시되지 않은’(non-préscrit)과 ‘금지된’의 모순항인 ‘금지되지 않은’(non-interdit)을 갖는다. 이에 ‘명령지시되지 않은’의 반대항은 ‘금지되지 않은’이 된다. 그리고 ‘명령지시된’은 ‘금지되지 않은’을 함의항으로 갖고, ‘금지된’은 ‘명령지시되지 않은’을 함의항으로 갖는다.

그리하여 이러한 항들에 죽음을 대입하여 보면 ‘명령지시된 죽음’(préscrit death)의 반대항은 ‘금지된 죽음’(interdit death)이 된다. 그리고 ‘명령지시된 죽음’의 모순항은 ‘명령지시되지 않은 죽음’(non-préscrit death)이 되고, ‘금지된 죽음’의 모순항은 ‘금지되지 않은 죽음’(non-interdit death)이 된다. 또한 ‘명령지시되지 않은 죽음’은 ‘금지되지 않은 죽음’의 반대항이자 ‘금지된 죽음’의 함의항이다. 마찬가지로 ‘금지되지 않은 죽음’은 ‘명령지시되지 않은 죽음’의 반대항이면서 ‘명령지시된 죽음’의 함의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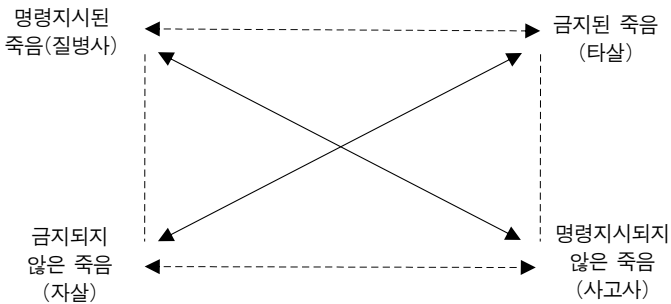
이때에 ‘명령지시된 죽음’으로 ‘질병사’를 들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한 죽음은 자신의 의지나 소망과는 무관하게 신체에 이상이 생겨 죽게 된 것으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문화의 발달 속에서 그것의 특징이나 대처 방안이 파악된 것으로 근대의 대다수 죽음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질병사는 문화의 규범에 속하는 ‘명령지시된 죽음’이라

9)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그레마스의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p.159.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규정된 죽음의 반대항인 ‘금지된 죽음’은 ‘타살’처럼 타인에 의해 죽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죽인 자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한 자가 된다. 그리고 ‘명령지시된 죽음’의 모순항인 ‘명령지시되지 않은 죽음’은 ‘사고사’처럼 그러한 죽음이 도덕적 비난의 대상도 아니고 위법도 아닌 것이다. 또한 ‘금지된 죽음’의 모순항은 ‘금지되지 않은 죽음’으로 ‘자살’처럼 경우에 따라 도덕적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위법은 아닌 것이다.

이에 이러한 죽음을 ‘기호 사각형’의 모델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식 2〉



이러한 죽음의 구조화에 의거할 때에 최명익의 소설에서는 ‘명령지시된 죽음’인 질병사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 <비오는 길>에서 이철성이 장질부사로 죽고, <무성격자>에서 문주와 만수노인이 결핵과 위암으로 죽고, <봄과 신작로>의 주체인 금녀가 성병으로 죽고 있음이 그러하다. 그리고 <심문>의 여옥이 자살하듯이 ‘명령지시된 죽음’의 함의항이자 ‘금지된 죽음’의 모순항인 ‘금지되지 않은 죽음’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명령지시된 죽음’의 반대항인 ‘금지된 죽음’과 ‘금지된 죽음’의 함의항인 ‘명령지시되지

않은 죽음'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문주가 어느 날 밤에 잠든 명일을 면도칼로 죽이려고 했듯이 '금지된 죽음'이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최명익 소설에서는 '명령지시된 죽음'인 질병사가 대다수로 나타나고, '금지되지 않은 죽음'인 자살은 한 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금지된 죽음'인 타살은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명령지시되지 않은 죽음'인 사고사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기호 사각형'으로 구조화된 의미 관계 속에서 죽음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기로 한다.

Ⅲ. 구조화에 따른 죽음의 의미

최명익 소설에서 죽음은 '명령지시된 죽음'인 질병사가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사가 각 작품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질병의 종류가 다르듯이 그로 인한 죽음도 변별성을 뚜렷이 보여주면서 의미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오는 길>의 이철성의 죽음과 <봄과 신작로>의 금녀의 죽음은 장질부사와 성병에 기인한 것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투병도 못한 채 죽은 것이다. 그러나 <무성격자>에서 문주와 만수노인의 죽음은 당시에 치료가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투병도 행해진 결핵과 위암에 기인한 것으로 이미 예견된 상태에서 죽은 것이다.

<비오는 길>에서 이철성은 유행병인 장질부사에 걸려 급작스레 죽는다. 그리고 이러한 이철성의 죽음은 주인공 병일의 심각한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이전에 지켜왔던 삶의 태도를 지속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되고 있다. 공장 사무실의 서사로 일하는 병일은 채용된 이 년 동안

에도 신원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사장으로부터 끝없는 감시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초라한 처지이지만 독서를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모두 ‘노방의 타인’으로 대하며 항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던 병일이 퇴근길에 우연히 비를 피하려다 들린 사진관에서 이철성을 만남으로써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강한 생활력을 지닌 이철성의 세속적 행복관에 병일이 은연중에 끌려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병일은 이철성을 한편으로 경멸하면서도 다른 한편에는 동경하는 이중적 태도를 나타낸다. 그렇지만 이철성은 장마기간 동안 평양에 유행한 장질부사에 걸려 짧은 기간에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연히 죽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박수현은 병일을 생활보다 독서에 대한 집착이 강한 욕망 없음을 보여주는 ‘타나토스’ 지향의 인물로 보고 이철성을 삶과 이성에 대한 집착이 강한 ‘에로스 지향의 인물로 본다. 그리고 병일은 타나토스적 삶의 방식에 안주하는 인물이 아니기에 자신과 이철성의 생활 방식을 두고 내적 분열을 일으킨다고 여긴다.¹⁰⁾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병일의 그러한 이중성이 개인 심리의 내적 분열을 나타낸 것임을 설명하는데 머물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내적 분열의 한 특성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반복적으로 왕복하면서도 점차 그러한 분열을 해소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로 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일은 독서 활동도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그들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이철성이 장질부사에 걸려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내적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게 된다. 병일이 이제부터 독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작정하고 있음이 그러하다. 물론 병일이 다시 독서에 강행군을 하겠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

10) 박수현, 앞의 글, p.340.

결책을 찾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어지는 다른 작품들의 주인공들은 자기 성찰을 통해 오히려 일상생활에 다가가면서 독서를 대체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서 행위가 실질적 해결책이 되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병일은 이철성의 돌연한 죽음으로 흔들리던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이철성의 죽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최명익의 소설에서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일방적으로 긍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봄과 신작로>에서 금녀가 외간 남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걸려 투병도 못한 채 죽음을 맞고 있지만, 그녀의 죽음이 긍정되고 있지는 않다. 유행병으로 인한 이철성의 죽음과 달리 특정한 가해자의 횡포로 인해 금녀가 죽기 때문일 것이다. 금녀는 조혼으로 인해 어린 신랑과 살면서 성적인 욕구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평양과 인근 지방을 오가는 트럭 운전수의 유혹과 위협에 쉽게 넘어가서 성병까지 얻어서 죽고 있다.

금녀는 자신의 질병이 불륜으로 얻은 성병이기에 남에게 그것을 밝힐 수도 없고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죽어간다. 그러니까 금녀는 당시 사회에서는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여자의 간음’으로 인해 죽음이란 치명적인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녀에게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습적 결혼의 억압 속에서 운전수의 악행이란 더욱 큰 잘못으로 그녀가 죽게 된다. 이처럼 그녀는 자신을 일시적으로 희롱하고 버린 운전수란 특정 가해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있다. 이런 점을 화자가 연민의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에 그녀의 죽음은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령지시된 죽음’이면서도 당시에는 치유가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투병도 이루어졌던 질병사의 경우는 어떠한가. <무성격자>에서 주

인공 정일의 애인 문주와 아버지 만수노인의 죽음은 결핵과 위암이란 치명적 질병에 기인한 것이며, 이에 대한 치료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문주는 지식인의 질병이라 할 결핵으로 죽고, 만수노인은 탐욕자의 질병이라 할 위암으로 죽는데, 그들의 질병이 다르듯이 그들의 죽음이 갖는 의미도 다르다. 문주는 삶의 의지를 애초에 잃어버린 인물이기에 그녀의 죽음은 이미 죽은 자가 죽은 것이라 할 수 있다면, 만수노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초인적인 삶의 의지를 보여준 인물이기에 그때 죽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일은 타지에서 교사로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던 독서를 중단하고 술에 빠져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친구 윤학의 사촌 동생인 문주를 만나 하나의 안식처로 그녀를 찾게 된다. 그들은 삶의 방향성을 잃고 허무에 빠져 있는 ‘무성격자’란 동질적 면모를 지니고 있었기에 서로 공감하면서 애인 사이가 된 것이다. 문주가 정일에게 같이 죽어달라면 언제든 들어줄 것 같아서 좋다고 말하자 정일도 그녀에게 동조한다. “그 말을 하는 문주의 눈이 그렇게 빛나고 그 조개인 입술이 떨리고 무서운 힘으로 껴안으며 하는 말이라 그때마다 문주와 같이 감격할밖에 없고 그때 만일 문주가 같이 죽어달라면 죽었을 것이다”¹¹⁾라고 하며, 정일이 문주의 말에 전적으로 호응하고 있음이 그러하다.¹²⁾

그런데 정일은 차츰 자신과 동질적인 문주와 멀어진다. 그가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답답해하고 불안스러워 하면서 사창가에서 살찐 창녀와 자면

11) <무성격자>, p.39.

12) 여기에서 정일의 문주에 대한 사랑은 ‘남자의 간음’에 해당한다. 명일은 기혼남이고 문주는 미혼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봄과 신작로>에서 기혼녀 금녀가 도덕적 금기를 위반한 ‘여자의 간음’으로 인해 죽음이란 치명적인 징벌을 받고 있다면, 정일은 ‘남자의 간음’이기에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고 치명적인 징벌을 받고 있지도 않다.

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그러하다. 이렇게 정일이 문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삶에 대한 그의 지향점이 달라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정일은 문주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과 이질적인 만수노인을 인정하게 된다. 이때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사케 하라는 말대로 하자면, 자기는 문주를 장사하러 가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일이는 아버지의 관을 맡았다”¹³⁾라고 하면서, 악의 없는 순환성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순환적 역설’¹⁴⁾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정일이 규범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선택하였음을 역설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조연현이 “‘정일’이가 그의 부친의 임종에서 발견한 것은 본능 이상의 끝없는 ‘의지력’이요 ‘위대한 의지력’이었든 것이다”¹⁵⁾라고 했듯이, 만수노인은 초인적인 의지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일도 이러한 점을 뚜렷이 인지하면서 그를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주리는 만수노인의 죽음은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는 ‘자연적 죽음’에 불과하다면, 문주의 죽음은 삶 자체를 예술화하는 ‘상징적 죽음’으로 고양되고 있다고 여긴다.¹⁶⁾ 하지만 정일이 자기 성찰을 통해 차츰 일상적 삶의 의지를 중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단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그리고 ‘금지되지 않은 죽음’인 자살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심문>에서는 여옥이 자살하고 있다. 그녀가 함께 살던 현일영에게 철저히 배신 당했기 때문이다. 이전에 여옥은 오룡배에서 화가인 명일의 모델 역할을

13) <무성격자>, pp.64-65.

14) 박종홍, 『최명익 소설의 ‘역설’ 고찰』, 『국어교육연구』 제61집, 국어교육학회, 2016.6, p.267.

15) 조연현, 『자의식의 비극-최명익론-』, 『백민』 제17호, 1949.1, p.135.

16) 오주리, 앞의 글, p.447.

하며 함께 지내다가 하얼빈으로 현일영을 찾아갔다. 명일은 삼 년 전에 상처한 홀아버이고 여옥도 미혼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도덕적 금기를 깨트림 없이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처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일이 죽은 아내 혜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시종 분열된 시선으로 여옥을 바라본다는 점에 실망하여 그녀가 먼저 떠나간 것이다.

그런데 여옥이 하얼빈에서 다시 만난 첫사랑은 과거에 청년들에게 존경받던 이념 투사 ‘현혁’이 아니라, 이름도 바꾸고 전향한 뒤에 타락하여 말기 마약중독자가 된 ‘현일영’이었다. 그럼에도 그의 곁에 계속 머물던 그녀는 그가 그녀를 간절하게 원하는 이유가 그녀에 대한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가 벌어다 주는 돈 때문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때에 현일영은 ‘모욕을 모욕으로 갚는다’는 말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명일에게 돈을 받고 여옥을 넘겨준다. 그렇지만 질투로 인해 강한 ‘경계심’ 속에서 과도한 신체적 반응을 보이는 현일영을 여옥이 더욱 불신하듯이,¹⁷⁾ 여옥은 현일영의 변명을 마약중독자의 파렴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식인의 궤변으로 여길 뿐이다.

이렇게 현일영에게 철저히 실망한 여옥은 국내로 명일을 따라감으로써 갱생을 도모하는 대신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그 두 남자가 모두 ‘옛 꿈’에 사로잡혀 그녀에게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효주가 적절히 지적하듯이, “여옥에게 있어 ‘옛 꿈’이란 훼손되지 않은 온전한 사랑이다. 하지만 명일과의 사이에서나 현일영과의 사이에서도 제대로 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다주지 못하고 반쪽짜리 사랑만 주기 때문이”¹⁸⁾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옥은 사랑

17) 박종홍, 「〈심문〉의 ‘질투’ 고찰」, 『국어국문학』 제175호, 국어국문학회, 2016.6, p.187.

18) 김효주, 「최명익의 〈심문〉에 나타난 변증법적 정치와 이미지」, 『어문학』 118, 한국어문학회, 2012.12, pp.344-345.

의 진정성을 무엇보다 중시하였기에 죽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명일은 자살한 여옥의 모습을 보면서 “한 점의 티나 가느른 한 줄기 주름살도 없는 여옥이의 인당을 들여다보면서 죽은 내 처 혜숙이의 그것을 다시 보는 듯이 반갑기도 하였다. 그 영롱한 인당에 그들의 아름다운 심문이 비치어 보이는 것이다”¹⁹⁾라고 하며 그녀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그때에야 그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가 그녀의 자살을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으로 여기며 긍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최명익 소설에서 자살을 일방적으로 긍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장삼이사>에서 화자인 ‘나’는 자신이 예상한 여인의 자살이 망상일 뿐이었다고 반성하면서, 그녀가 자살하지 않음을 긍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기차에서 마주보는 좌석에 앉은 여인이 도망치다가 포주에게 잡혀가는 창녀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녀를 멸시하는 주위의 시선 속에서 포주인 중년신사와 그의 아들들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고 뺨까지 맞은 뒤에 그녀가 화장실로 가자 ‘나’는 그녀가 자살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하지만 그녀가 바로 화장을 고치고 직업적인 추파까지 흘리면서 ‘나’의 앞에 다시 돌아왔듯이, 그러한 예상은 관념적인 지식인의 기우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식인의 편견을 그녀가 여지없이 깨트려주고 있다. 이에 극심한 빈곤으로 포주에게 팔려가 몸을 팔아야하고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사랑을 찾고자 도망치기도 했던 여인에게는 자살도 하나의 사치란 점을 ‘나’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문영진은 “여기서의 돌발은 혼신의 연기를 하고, 다시 가면을 쓰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의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의 전 삶을 집

19) <심문>, pp.205-206.

약한 순간에서 발생하는, 섬광 속에서 언뜻 보이는 깨달음을 동반한다”²⁰⁾라고 한다. 섬광과도 같은 깨달음을 통해 ‘나’는 지식인 특유의 관념적 의식에서 벗어나 타자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여인이 자살하지 않은 것을 긍정함으로써 자살을 부정하고 있다.

이처럼 <비오는 길>에서 이철성의 질병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다가, <봄과 신작로>에서 금녀의 질병사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심문>에서 여옥의 자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다가 <장삼이사>에서 ‘나’의 망상에서 자살하던 여인이 살아서 삶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자살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리하여 죽음이 다양하면서도 복합적인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김예림처럼 “가치의 분명한 이항대립체계 속에서 어느 한편을 선택함으로써 가능해 지는 ‘자기 지키기’의 방법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²¹⁾라고 하며, 최명익 소설이 이항대립체계에 묶여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방적인 유연한 태도 속에서 죽음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듯이, 긍정과 부정의 왕복 운동 속에서도 자기 성찰을 통해 주요 인물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차츰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연현은 작자 자신이라고 인정되는 지식인의 절망과 불안과 무기력에 대한 ‘자의식의 비극’을 최명익의 소설이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자들이 생활을 갖지 못하고 의지력을 상실한 것은 절망적인 운명론적 인생해석으로 자기를 포기해 버린 데 있었던 것이라고 여긴다.²²⁾ 하지만 이런 판

20) 문영진, 『에피파니적 글쓰기와 미시사회의 발견-〈장삼이사〉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1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0.6, p.181.

21) 김예림, 『1930년대 후반의 비관주의와 윤리의식에 대한 고찰-최명익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 상허학회, 1998.11, pp.321-322.

22) 조연현, 앞의 글, pp.136-137.

단은 최명익 소설의 주인공들이 인식의 변화를 통해 생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차츰 삶의 의지를 존중해 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병일은 사진관 앞에서 이칠성의 유가족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 “산 사람은 아무렇게라도 죽을 때 까지는 살 수 있는 것이니까”²³⁾라고 혼잣말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진지한 삶의 목표 추구를 포기한 체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이칠성의 죽음에 대한 유가족들의 슬픔과 충격이 지금은 견디기 어렵지만 살아가다 보면 결국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고백에 바로 이어서 병일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의 상을 당하고 죽을 듯이 서러워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발언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이재선도 “산 사람은 아무렇게라도 죽을 때까지는 살 수 있다”란 병일의 독백은 결코 퇴보나 자조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일상적인 생활의 무력함이나 장마철같은 우울한 시대에 있어서 지식인의 불행이 어떻게든 감수하겠다는 발견이요 자각인 것이다”²⁴⁾라고 한다. 최명익 소설의 주인공들이 절망 속에서 자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굳건히 견뎌나가며 은밀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지식인 특유의 대응 방식을 잘 보여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명익 소설에서는 질병사란 ‘명령지시된 죽음’에서 어떤 죽음은 긍정하고 다른 죽음은 부정하며, 초인적인 삶의 의지를 긍정하기도 한다. 또한 ‘금지되지 않은 죽음’에서도 자살을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이렇게 질병사에 대한 긍정과 부정, 자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왕복 운동을 거듭하면서도 자기 성찰을 통해 주요 인물들은 차츰 죽음의 허무를 이겨내고 삶의 의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3) <비오는 길>, p.139.

24) 이재선, 앞의 책, p.490.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의 모델을 활용하여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최명익의 소설에 나타난 죽음을 구조화하고 그것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먼저 ‘명령지시된 죽음’은 질병사이고 그것의 반대항은 ‘금지된 죽음’인 타살로, 모순항은 ‘명령지시되지 않은 죽음’인 사고사로, ‘금지된 죽음’의 모순항은 ‘금지되지 않은 죽음’인 자살로 죽음을 구조화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최명익의 소설에서는 <비오는 길>의 이칠성, <봄과 신작로>의 금녀, <무성격자>의 문주와 만수노인의 죽음처럼 ‘명령지시된 죽음’인 질병사가 대다수이고, ‘금지되지 않은 죽음’인 자살이 <심문>의 여옥에게서 한 번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무성격자>에서는 ‘금지된 죽음’으로 문주의 정일에 대한 타살이 암시되고 있었다. 또한 질병사의 경우도 작품마다 각자의 변별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었다.

‘명령지시된 죽음’에서 이칠성과 금녀는 장질부사와 성병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는 질병이지만 투병도 못해본 채 돌연히 죽고 있었다. 이칠성의 죽음은 세속적 행복과 이상 추구 사이에서 동요하던 주인공 병일이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이상 추구에 매진하게 만드는 계기를 이룬다는 점에서 긍정되고 있다면, 금녀의 죽음은 특정 가해자의 일방적 횡포를 고발한다는 점에서 부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문주의 결핵과 만수노인의 위암은 당시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고 지속적인 투병도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들의 질병이 다르듯이 죽음의 의미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문주는 허무 속에서 삶의 의욕을 잃고 이미 죽은 자가 죽은 것이라면, 만수노인은 초인적인 삶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듯이 그때 죽지만 아직 죽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정일이 동질적인 문주로부터 차츰 멀어지면서 이질적인 만수노인의 의지력을 결국 존중하고 있듯이 그녀의 죽음을 부정하고 있었다.

또한 ‘금지되지 않은 죽음’인 자살의 경우에 <심문>에서는 타락한 애인 현일영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느끼고 자존감을 지키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옥의 자살을 긍정하고 있다면, <장삼이사>에서는 도망치다 다시 잡혀가는 창녀가 포주의 심한 모욕 속에서도 자살하지 않은 것을 긍정함으로써 자살을 부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죽음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바로 죽음에 대한 최명익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태도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질병사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며, 자살을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면서, 긍정과 부정의 왕복 운동을 하면서 자기 성찰을 통해 주요 인물들이 차츰 죽음의 허무에서 벗어나서 삶의 의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참고문헌】

-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그레마스의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 김성진,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근대적 시·공간 체험에 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9집,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pp.203-221.
- 김예림, 『1930년대 후반의 비관주의와 윤리의식에 대한 고찰-최명익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 상허학회, 1998.11, pp.299-324.
- 김혜연,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여성 소외의 문제』, 『오늘의 문예비평』, 1992. 9, pp.76-88.
- 김효주, 『최명익 소설 연구』, 푸른사상, 2014.

- 문영진, 『에피파니적 글쓰기와 미시사회의 발견-〈장삼이사〉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1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0.6, pp.171-192.
- 박수현, 『에로스/타나토스 간 ‘내적 분열’의 양상과 의미-최명익의 소설 <무성격자>와 <비오는 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7, 2009, pp.327-353.
- 박종홍, 『최명익 소설의 ‘행동자’ 고찰』, 『현대소설연구』 6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12, pp.231-258.
- _____, 『최명익 소설의 ‘역설’ 고찰』, 『국어교육연구』 제61집, 국어교육학회, 2016.6, pp.257-280.
- _____, 『<심문>의 ‘질투’ 고찰』, 『국어국문학』 제175호, 국어국문학회, 2016.6, pp.175-195.
- 박진영, 『근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내면세계-최명익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우리어문학회, 2003, pp.365-388.
- 오주리, 『최명익의 <무성격자>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32, 한국근대문학회, 2015.10, pp.425-454.
-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79.
- 임지룡,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1997.
- 장수익, 『최명익론-승차 모티프를 중심으로』, 『외국문학』 44호, 열음사, 1995년 가을, pp.132-156.
- 조연현, 『자의식의 비극-최명익론-』, 『백민』 제17호, 1949.1, pp.132-137.
- 진정석, 『최명익 소설에 나타난 근대성의 경험양상』, 『민족문학사연구』 제8호, 창작과 비평사, 1995, pp.179-199.
- 채호석, 『리얼리즘에의 도정-최명익론』,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pp.195-211.
- 최용호, 『그레마스의 의미생성 모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어와 언어학』 제38집, 2006.9, pp.163-184.
- 홍정표, 『정념기호학』,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4.
- 그레마스, 『의미에 관하여: 기호학적 시론』, 김성도 역, 인간사랑, 1997.
- 롤랑 부르뇌프/레알 윌레, 『현대소설론』, 김화영 편역, 문학사상사, 1986.
- Lonald Schleifer, A.J. Greimas and the Nature of Meaning: Linguistics, Semiotics and Discourse Theory,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Lincoln, 1987.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death,
from the novels of Choi Myeong-Ik

Park, Jong-hong

On this paper, I seek to go through the meaning of death in Choi Myeong-Ik's works by claiming the models of the semiotic square. 'prescribed death' should be death by illness, whereas its opposition 'interdit death' would be death by outside cause and its contradiction 'un-prescribed death' is death by accident. Also, the opposition of 'interdit death', 'un-interdit death' would be structured by suicide.

Externally, most are deaths by illness, such as those of Lee Chil-Sung from <Rainy Road>, Geum-Nyeo from <Spring and the new Road>, and Mun-Ju and the elderly Man-Su from <Characterless man>. whereas only one is suicide, in case of Yeo-Ok from <Simmun>. However, to actually look into them, it is found that each illnesses were different in terms of status. Thus, it may seem that only 'prescribed death' and 'un-interdit death' are selected, but in reality, there are varieties of 'un-prescribed death' and 'un-interdit death', each being the opposition, and the undertone of 'prescribed death'. By the complex meanings of deaths exceeding the borders of themselves, these works show a flexible stance towards death.

In the novels of Choi Myeong-Ik, death can be affirmed or denied. Suicide also can be affirmed or denied. Through this, consideration on life and death may seem to cross, but eventually it is that one escapes the vain of death, and affirms the will to live.

Key Word : semiotic square, death, meaning, prescribed, interdit, un-prescribed, un-interdit, self-reflection.

박종홍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전자우편 : parkjh@ynu.ac.kr

이 논문은 2016년 10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12월 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